

## 화성시 기후행동 정책

### ①탄소중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

-친환경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,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. 수상작은 화성시의 친환경 정책에 반영

<http://www.planet-times.com/View.aspx?No=2609717>



**화성시민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공모**

| 접수기간 2021. 10. 18.(월) ~ 11. 12.(금) |

**공모자격**  
화성시민(화성시 소재 직장인, 학생 포함)

**공모주제**  
시민이 제과 가능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참신한 탄소저감 아이디어 (그린뉴딜 등)

**시상금**  
총 1,000만원(총14건)  
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(www.hcsky.go.kr) 공고고시 참조

**접수방법**  
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

~ 이메일  
kkh187@korea.kr

~ 우편/방문접수  
(18274) 경기도 화성시농림읍 시청로 159  
화성시청 2층 전략사업팀/환경과

### ②화성시와 함께하는 그린포인트

-19세 이상 화성시민은 주2회 미션(텀블러 사용하기, 우리동네 플로깅 등)을 통해 월 최대 1만원의 지역화폐를 얻을수 있다.

<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20411102749406>



**화성시와 함께하는 그린포인트**

사업기간 2022년 4월 ~ 12월(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)

대 상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

실천종목 텀블러 사용하기, 다화용 용기 사용하기, 폐건전지 수집하기, 종이팩 수집하기  
우리동네 플로깅(한 종목당 주 2회 실천가능)

참여방법 기후행동 1.5°C 앱 설치 및 가입 후 참여

운영방법 생활실천 미션 수행 시 매월 지역화폐 지급

**포인트 지급 기준**

실천항목	지급기준(원)	비고
텀블러 사용하기	500	월 최대 10,000원 지급
다화용 용기 사용하기	1,000	
폐건전지 수집하기	1,000	
종이팩 수집하기	2,000	
우리동네 플로깅(쓰레기 수거)	1,500	

문의사항 화성시 기후환경과 031-5189-7250

한국기후·환경네트워크 02-6953-8352

\* 그린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, 기후행동 1.5°C 앱 관련 문의는 한국 기후·환경네트워크로 연락하십니다.

### ③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

- 태양광 전지판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. 저탄소, 고효율 에너지 산업단지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목표

<http://www.mtnews.net/m/view.php?idx=13229>

이 중 '대월2 일반산업단지'는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약 6만 m<sup>2</sup> 규모로 신규 조성되는 곳으로, 연료전지·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을 조성단계부터 적용하게 된다.

특히 전국 신규 조성 산업단지 중 최초로 '탄소중립' 개념을 적용했으며, RE100 선도기업 중 하나인 'SK에코플랜트'가 파트너로 참여해 대·중·소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를 위해 경기도와 이천시는 인·허가 등 행정·제도적 지원을, 경기주택도시공사사는 사업 시행과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맡는다. SK에코플랜트는 탄소중립 기술 지원과 협력기업들의 산업 입주 독려에 협력하기로 했다.

'화성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'는 지난 1985년에 준공된 약 65만 m<sup>2</sup> 규모의 전국 최대 의약품 생산 산업단지로서, 저탄소·고효율 에너지 산업단지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'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'과 '향남제약산업단지 3040 추진계획'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 소비 중 신재생 발전 비중을 40%까지 늘릴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도와 화성시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제약협동조합은 그린뉴딜 사업 추진,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확대,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, 그 밖에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합의했다.

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까지 '경기도형 모델'을 도출한 뒤,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산업 유형별 실제 적용 등 사업화 단계를 거친 후, 2050년까지 도내 산업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.